창간 제3호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경제·금융 기초

1조 달러까지 363억 달러, 80년 만에 세계 4번째 수출국

11월 10일까지 누적 9,637억 달러…반도체가 42.7%, 무역흑자는 2,949억 달러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1948년 1,900만 달러로 세계 100위였던 수출이 78년 만에 1조 달러 문턱에 섰다. 그 숫자의 42.7%를 만든 것은 반도체 한 품목이고, 집중도는 다음 국면의 변수로 남는다.

오는 19일이나 20일, 한국이 사상 처음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번째다. 1948년 정부 수립 때 1천900만 달러로 세계 100위였던 나라의 기록이다.

11월 10일까지 9,637억 달러

산업통상부와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천6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0% 늘었다. 연간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19일 저녁 내지는 20일 아침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이 2007년에 각각 1조 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19년 만에 네 번째로 이 집단에 이름을 올린다. 2011년 8천22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5년째 1조 달러를 넘지 못한 일본보다 먼저 도달한다.

연도 · 수출액(억 달러) · 구분

1964 · 1 · 최초 1억 달러

1977 · 100 · 1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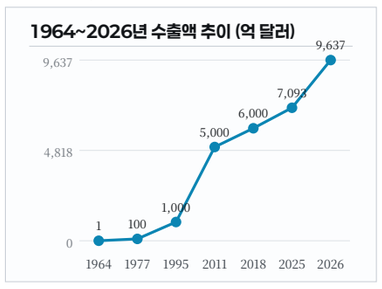
1995 · 1,000 · 1천억 달러

2011 · 5,000 · 5천억 달러

2018 · 6,000 · 6천억 달러

2025 · 7,093 · 일본(7,383)과 격차 최소

2026 · 9,637 · 11월 10일까지 누적



1,900만 달러에서 9,637억 달러까지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를 차례로 넘었다. 2004년 2천억 달러, 2006년 3천억 달러, 2008년 4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7천93억 달러로 일본(7천383억 달러)과의 격차를 역대 최소로 좁혔다. 올해는 8천억 달러와 9천억 달러 선을 한 해 안에 연달아 넘고 1조 달러까지 왔다.

수출 품목도 함께 바뀌었다. 1960년대 수출 10대 품목에는 돼지털이 있었다. 의복솔과 구두솔, 페인트솔을 만드는 브러시 원료로 팔려나갔다.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가발도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전환이 변곡점이 됐고, 이후 첨단 제조업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에 섰다.

42.7%는 반도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3천9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1%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7%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열기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10월 한 달 수출은 1천15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3.7% 늘었다.

1조 달러를 만든 것은 단일 품목의 사이클이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사이 전체 수출 증가율은 62.0%였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 수출 전체가 같은 폭으로 흔들리는 구조가 숫자에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역흑자 2,949억 달러

무역수지도 기록적인 폭으로 불었다. 1~10월 누적 흑자는 2천949억 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952억 달러)의 세 배를 넘는다. 수출이 그만큼 수입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흑자 규모 자체가 국내 산업의 체력을 뜻하지는 않는다. 수출 대기업의 벌이가 커질수록 그 아래 중소 협력업체와 내수 업종의 체감 경기와 벌어지는 현상은 이번 주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4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이 9개월 새 44.0% 늘어난 것과 같은 시기의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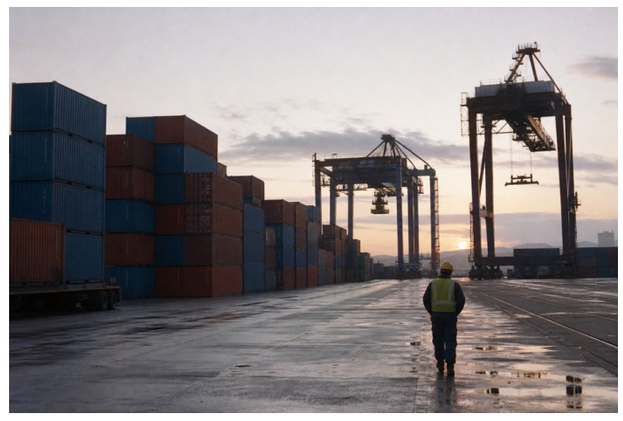
남은 것은 품목의 균형

> "지난해 7천억 달러를 달성할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이라며 "기저 효과 등으로 내년에는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1조 달러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다봤다."

권 원장은 이어 "반도체 편중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이나 환율 등 거시경제 변화, 반도체 성과의 낙수효과 미흡 등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꼭대기에 오르면 바람이 거센 것처럼 주요국의 통상 견제와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AI·반도체에 기댄 수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무역위원장)는 말했다."

1조 달러는 규모의 사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품목 하나의 비중이 42.7%다. 1995년 1천억 달러를 넘을 때와 2018년 6천억 달러를 넘을 때도 주력 품목은 달랐다. 이번에는 그 교체의 폭이 아니라 한 품목으로의 수렴이 기록을 만들었다. 내년의 수출 곡선은 반도체 사이클과 통상 환경이 결정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 올해 11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9천637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1. 11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9천637억 달러로, 1조 달러까지 363억 달러가 남았다.
2.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3천96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3.1% 늘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3. 1~10월 무역흑자는 2천949억 달러로 2017년 연간 최대치의 세 배를 넘었다.

용어 한눈에 보기

무역수지 —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기저효과 — 비교 대상이 되는 지난해 수치가 유난히 높거나 낮아 올해 증감률이 크게 보이는 현상.

메모리 반도체 — 데이터를 저장하는 D램·낸드플래시. AI 서버 수요와 가격 사이클에 민감하다.

"지난해 7천억 달러를 달성할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이라며 "기저 효과 등으로 내년에는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1조 달러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다봤다."

— 조경용 기자

경영·전략

누적 12조6,248억 원은 역대 최대, 3분기 투자는 32.3% 줄었다

중기부 1~3분기 벤처투자 동향…전기·기계·장비가 처음 1위, 펀드 결성은 4조5,605억 원

조경용 기자

경영·전략 · 2026.11.18

올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12조6,248억 원으로 같은 기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동향의 3분기 숫자는 3조7,57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2.3% 줄어든 값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6년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동향'은 두 개의 다른 그림을 담고 있다. 누적으로는 사상 최대이고, 최근 분기만 떼어 보면 큰 폭의 조정이다.

12조6,248억 원, 2021년 기록을 넘었다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12조6,2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늘었다. 종전 최고였던 2021년 1~3분기(10조8,679억 원)보다 1조7천억 원 이상 많다. 같은 기간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는 12조9,971억 원으로 29.7% 늘어, 종전 최고인 2022년(12조7,465억 원)을 넘었다. 기업 한 곳당 평균 투자액도 37억 원으로 19.2% 증가했다.

늘어난 투자금 2조7,886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나왔다. ICT 제조 투자는 1조5,952억 원으로 64.7%, 전기·기계·장비는 2조2,447억 원으로 53.1% 늘었다. 반도체와 로봇, 첨단 제조 등 AI 관련 분야의 대형 투자가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3분기 숫자만 보면 3조7,572억 원

3분기 신규 투자는 3조7,572억 원이다. 전분기보다 32.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다. 글로벌 흐름도 같다. 회계법인 KPMG 집계로 3분기 세계 벤처투자는 1천709억 달러로 전분기(2천389억 달러) 대비 28.5% 감소했다.

조정의 진폭은 업종별로 갈렸다. 바이오·의료 투자는 4천133억 원으로 전분기(8천230억 원)보다 49.8% 줄었고, ICT서비스는 6천461억 원으로 전분기(1조1,487억 원) 대비 43.8% 감소했다. 반면 ICT제조는 9.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업계는 3분기 감소를 시장 위축으로만 읽지 않는다. 3분기 투자액 3조7,572억 원은 2022년 이후 분기 평균(3조2,410억 원)보다 15.9% 높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돈이 옮겨 간 곳: 전기·기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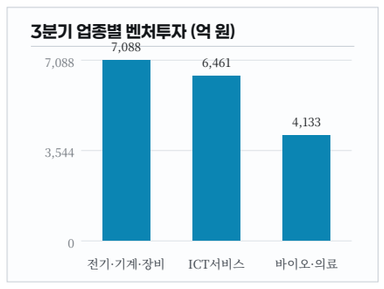
3분기 업종별 1위가 바뀌었다. 전기·기계·장비가 7천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 로보틱스, 첨단제조가 포함된 업종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ICT서비스가 2조5,061억 원으로 가장 크고, 전기·기계·장비(2조2,447억 원), 바이오·의료(1조9,174억 원)가 뒤를 잇는다. 화장품 기업들의 대형 투자로 화학·소재도 1조 원을 넘었다. 게임 업종은 831억 원으로 62.5% 줄었다.

3분기 업종 · 투자액(억 원) · 전분기 대비

전기·기계·장비 · 7,088 · 1위로 상승

ICT서비스 · 6,461 · -43.8%

바이오·의료 · 4,133 · -49.8%



> "2분기 대형 투자 이후 AI기업들에 대한 수익성 검증 요구가 커지며 반도체, 로봇 등 하드웨어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라고 KPMG는 분석했다."

업력으로 보면 후기가 덜 줄었다

3년 초과 7년 이하 중기 투자가 9천213억 원으로 42.4%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3년 이하 초기 투자(7천194억 원)도 38.0% 줄었다. 7년 초과 후기 투자(2조1,165억 원)는 24.1% 감소에 그쳤다.

업력 · 3분기 투자액(억 원) · 전분기 대비

3년 이하 · 7,194 · -38.0%

3년 초과 7년 이하 · 9,213 · -42.4%

7년 초과 · 21,165 · -24.1%

누적으로 보면 초기 기업으로 가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 창업 3년 이하 기업 투자는 2조5,476억 원으로 47.6% 증가해 전체 증가율(28.4%)을 웃돌았다. AI·로봇·반도체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의 초기 기업에 큰 투자가 이뤄진 영향이다. 3분기의 초기 투자 감소와 누적 증가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다.

펀드 결성은 4조5,605억 원

향후 투자 규모를 가늠할 지표인 펀드 결성은 3분기에 4조5,60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 늘었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가 3분기에 결성을 마친 영향이다. 출자자별로 정책금융은 9천248억 원으로 63.2% 늘었고, 민간 부문은 3조6,356억 원으로 3.7% 증가했다. 누적 출자에서는 금융기관이 3조9,527억 원으로 48.2%, 일반 법인이 3조4,788억 원으로 40.9% 늘었다. 대형 증권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생기고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낮아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책금융 출자는 2조5,522억 원으로 53.1% 늘었고, 연금·공제회 출자는 5천739억 원으로 40.3% 줄었다.

지역: 대전 72.9%, 부산은 두 배

비수도권 투자가 1조5,199억 원으로 66.7% 늘어, 수도권(4조3,080억 원, 26.0% 증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경제·금융 기초

"셀트리온, 미국 판매 확대에 성장 지속", 하나증권, 목표가 31만원 제시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하나증권은 18일 셀트리온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신규 제품 판매가 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와 목표주가 31만원을 신규 제시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5조8478억원, 영업이익을 1조8939억원으로 추정했다. 미국 의료보장 확대 논의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가능성도 투자 요인으로 제시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 제도다. 셀트리온은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 인수 이후 올해부터 일라이릴리를 대상으로 의약품 위탁생산(CMO)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내년 매출 증가에는 미국 신규 제품의 판매가 중요할 전망"이라며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높다는 점을 매 분기 실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면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매출액

셀트리온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57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증가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규 출시된 5개 제품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이들 제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며 "미국에서의 직판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업화 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출시된 5개 제품 판매와 미국 시장 직판 성과가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경제·금융 기초

9월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하락, '신규 연체율'은 3년 만에 최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8월 약 10년 만에 최고치(0.69%)를 찍은 뒤, 한달 만에 0.10%포인트 떨어졌다.

테크·AI 트렌드

MS, 'MAI 코드 2' 출시, 앤트로픽급 코딩 성능에 비용은 5%

MS는 ' GPT-6 루나' 와 ' 클로드 하이쿠 5.5' 에 근접한 코딩 성능을 각각 65%, 20%의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기초

"올 한국 경제성장률 3.9% 전망", IMF, 한 달 만에 0.6%P 또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0.6%포인트 높인 3.9%로 상향 조정했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창업·경영

아이디어에서 출시까지, 회사를 움직이는 판단

앞 면에서 계속 누적 12조6,248억 원은 역대 최대, 3분기 투자는 32.3% 줄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은 로봇과 차세대 에너지 기업에 투자가 몰리며 5천802억 원(72.9% 증가)을 기록했고, 부산은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 덕에 1천978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56.5% 늘었지만 서울은 9.6% 증가에 그쳤다.

정책자금이 펀드 결성으로 유입되고, 그 자금이 반도체·로봇·첨단제조로 향하는 흐름이 3분기 숫자에 겹쳐 있다. 반대로 바이오와 ICT서비스, 게임은 줄었다. 업종 간 온도차가 분기 실적을 -32.3%와 역대 최대라는 두 숫자로 동시에 만들었다.

경제·금융 기초

4대 은행 '깡통대출' 5조873억 원, 늘어난 돈의 93%가 기업에서 나왔다

3분기 말 무수익여신 9개월 새 32.2% 증가…기업 여신 44.0% 늘 때 신용공여는 조선·방산으로 이동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4대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5조 원을 넘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 여신에서 나왔고, 같은 기간 은행권의 거액 신용공여는 조선·방산으로 향하고 석유화학·이차전지에서는 빠져나갔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최고치를 달리는 동안, 그 대기업에 부품을 대는 공장의 대출은 이자도 못 내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두 통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9개월 만에 1조2,405억 원 증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5조873억 원이다. 지난해 말(3조8천468억 원)보다 1조2천405억 원(32.2%)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것으로, 흔히 '깡통 대출'로 불린다.

4대 은행의 무수익여신은 2022년 말 2조2,772억 원에서 해마다 늘어 2023년 말 2조7,525억 원, 2024년 말 3조1,787억 원, 지난해 말 3조8천468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4조 원대를 지나 5조 원대에 올라섰다.

같은 기간 총여신은 1천498조5천485억 원에서 1천548조1천164억 원으로 3.3% 늘었다. 여신 증가 속도보다 부실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다.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26%에서 0.33%로 상승했다.

구분(억 원)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3분기 말

총여신 · 14,495,669 · 14,985,485 · 15,481,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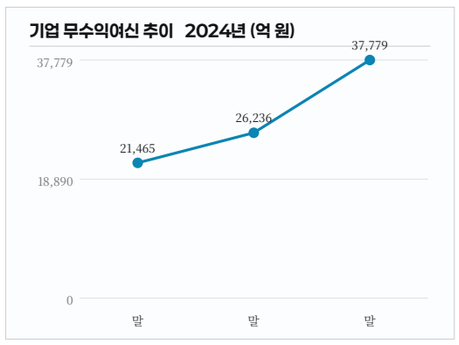
기업 총여신 · 8,515,529 · 8,751,997 · 9,135,964

가계 총여신 · 5,980,142 · 6,233,488 · 6,345,200

무수익여신 합계 · 31,787 · 38,468 · 50,873

기업 무수익여신 · 21,465 · 26,236 · 37,779

가계 무수익여신 · 10,321 · 12,232 · 13,094



기업 여신 3조7,779억 원, 44.0% 증가

기업 무수익여신은 2조6천236억 원에서 3조7천779억 원으로 1조1천543억 원(44.0%) 늘었다. 가계는 1조2천232억 원에서 1조3천94억 원으로 862억 원(7.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증가액 가운데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1%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 무수익여신은 1조904억 원에서 1조6천529억 원으로 51.6% 늘었다. 기업 부문만 보면 6천930억 원에서 1조3천228억 원으로 90.9% 급증한 반면, 가계 부문은 3천974억 원에서 3천301억 원으로 16.9% 줄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기업과 가계의 방향이 갈린 사례다.

우리은행은 8천194억 원에서 1조2천230억 원으로 49.3% 늘었다. 기업이 56.0%, 가계가 34.8%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9천384억 원에서 1조987억 원으로 17.1%, KB국민은행은 9천986억 원에서 1조1천127억 원으로 11.4% 각각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네 은행 모두 무수익여신이 1조 원을 넘었다. 무수익여신 비율은 하나은행 0.30%에서 0.43%, 우리은행 0.25%에서 0.35%, 신한은행 0.25%에서 0.28%, KB국민은행 0.24%에서 0.26%로 일제히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공여는 조선·방산으로

부실이 중소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동안, 은행의 거액 신용공여는 다른 업종으로 움직였다. KB·신한·하나금융의 상위 20대 차주 대상 신용공여액은 9월 말 68조4천441억 원으로 1년 전(68조7천35억 원)과 비슷했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구성이 달라졌다.

신한·하나금융의 HD현대중공업 신용공여액은 1조8천290억 원에서 2조7천783억 원으로 51.9% 늘었다. 신한금융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제공한 신용공여는 1조768억 원에서 1조6천668억 원으로 54.8% 증가했다. 하나금융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용공여는 1조2천615억 원에서 1조5천299억 원으로 21.3% 늘었다.

익스포저를 항목별로 공시한 신한금융을 보면 HD현대중공업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급보증액이 2조259억 원에서 3조2천56억 원으로 58.2% 급증했다.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과 방산 수출 계약 이행보증 수요가 함께 늘어난 결과다.

상위 20대 차주 명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B금융에서 1조30억 원의 신용공여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금융에서는 9천850억 원으로 상위 10대 차주에 진입했다. 삼성중공업(1조4천73억 원)과 현대로템(1조1천605억 원)도 지급보증액을 바탕으로 신한금융 상위 20대 차주에 새로 들어왔다.



중소 금속가공 공장의 작업 현장. 4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은 9개월 사이 44.0% 늘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빠져나간 곳: 석유화학·이차전지

반대편에서는 한도가 줄었다. KB금융 상위 20대 차주에 있던 SK온(8천140억 원)은 올해 9월 말 명단에서 빠졌다. 신한·하나금융의 롯데케미칼 신용공여액은 1조8천928억 원에서 1조4천236억 원으로 24.8% 줄었고, KB·하나금융의 한화솔루션은 2조167억 원에서 1조6천455억 원으로 18.4% 감소했다. KB금융의 삼성SDI 신용공여는 1조2천650억 원에서 7천110억 원으로 43.8% 급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3.7% 줄었다. 하나금융의 SK온 신용공여도 8천434억 원에서 8천6억 원으로 5.1% 감소했다.

두 숫자가 가리키는 것

>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과 달리 철강·기계 기구 제조업, 석유화학 등 수주와 매출 회복이 더뎌 업종 간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회복 격차 속에서 공단 지역 일부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 부담과 상환 여력 저하가 기업 여신 중심의 무수익여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이 선제적인 한도 축소와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말했다."

은행의 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그 돈이 향하는 곳과 갚지 못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 조선·방산에는 보증과 운전자금이 몰리고, 석유화학·이차전지에서는 한도가 줄고, 중소 제조업의 연체는 쌓인다. 이번 분기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이 세 방향이 만든 합계다.

창업 스토리

독일 애자일 로봇츠, 5억달러 투자 유치, 기업가치 85억달러 평가

소프트뱅크그룹이 투자를 주도했고 엔비디아와 히타치, T.캐피털 등이 참여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7

독일의 피지컬 AI 기업 애자일로봇(Agile Robots)이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 히타치 등으로부터 5억달러(약 7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는 85억달러(약 12조4000억원)로 평가됐다. 이로써 회사가 지금까지 유치한 누적 투자금은 약 2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투자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주도했으며 엔비디아, 히타치그룹의 히타치 및 히타치벤처스, T.캐피털 등이 참여했다.

2018년 독일항공우주센터(DLR)에서 분사해 설립된 애자일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바일 로봇, 로봇팔, 로봇핸드, 인공지능 모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애자일 로봇은 17일 공식 발표를 통해 5억달러 규모의 시리즈 F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애자일 로봇은 이번 투자금을 글로벌 사업 확대와 로봇 생산능력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애자일 로봇은 현재까지 자동차, 가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약 2만건의 산업용 로봇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크라우제 오토메이션(Krause Automation)을 인수하는 등 산업용 로봇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올해 대형 라운드가 몰린 영역이다.

애자일 로봇은 자동차·가전·물류에 2만 건 규모의 산업용 로봇 솔루션을 공급해 왔고, 최근에는 독일 티센크루프의 자동화 자회사 크라우제 인수를 통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이번 라운드에 엔비디아와 히타치가 참여한 것은 로봇 하드웨어와 AI 칩, 산업 자동화 수요가 한 사업군에서 만나는 구도를 보여준다.

창업 스토리

일라이 릴리, 비만약 밖으로 거래 확장…올해 40건 성사

평일마다 투자클럽은 Homestretch를 출시한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7

엘리 릴리는 칼리트릭스바이오를 최대 1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Calytrix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프랜차이즈를 넘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수단으로 인수합병을 쓰고 있다. 데이비드 릭스 최고경영자는 10월 7일 BiotechTV 인터뷰에서 회사가 올해 40건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수치다.

거래 속도도 빨라졌다. 릭스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평균 2주에 한 건꼴로 거래를 처리했고, 최근에는 주 1회 수준으로 늘었다. 그는 CNBC TV에서 주식을 언급할 때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72시간을 기다리는 규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작은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의 평가도 함께 움직였다. 바클레이스는 16일 릴리 목표주가를 1,400달러에서 1,550달러로 올렸다. 이 상향은 대부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모델을 갱신한 분석가들의 조정과 맞물려 있다. 바클레이스는 12월 7일 예정된 릴리의 혁신의 날을 경영진이 비만을 넘어선 성장 기회를 설명하는 자리로 지목했다.

GLP-1 계열 비만약에서 나온 현금흐름을 다른 치료 영역으로 옮기는 전략은 릴리의 M&A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이 보는 관점은 거래 건수 자체가 아니라 비만약 매출이 정점을 지난 뒤에도 성장을 이어갈 파이프라인이 확보되는지다.

릴리의 거래 확대는 비만약이 만든 현금흐름이 배경이다. GLP-1 계열 매출이 커지면서 인수 여력이 생겼고, 회사는 그 자금을 비만약 외 영역의 파이프라인으로 옮기고 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목표주가 상향 자체보다, 다음 분기에 어떤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지다.

단신

창업 스토리

석유 최고가격제 이견, 재경부 "내년에도 하자" VS 산업부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금융 기초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가 1억 달러짜리 정부 과제를 150만 달러에 끝낸 방법

미국 연방정부의 퇴직 신청은 20년째 종이에 묶여 있었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출신 조 게비아가 이끄는 팀이 6개월, 150만 달러로 이 일을 끝냈다고 말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테크

돈의 흐름과 도구의 변화

3면

테크·AI 트렌드

“안경테서 불빛 번쩍였다”, 법학적성 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쓴 20대 적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스마트안경을 수거해 응시 무효 조치를 내렸고,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학적성시험(LEET)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수험생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교시 시험을 마치고 2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안경테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가 착용한 스마트안경 외에 무선 이어폰 등 별도의 통신·전자기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기기 내 데이터 검증에 한계가 있어 현장 적발 경위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수거하고 A씨에게 퇴실 및 응시 무효 조치를 내렸다.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줄 몰랐으며, 안경을 이용해 부정하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디지털 기기의 반납 안내와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고지가 이뤄졌고, 적발 당시 스마트안경의 전원이 켜져 작동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테크·AI 트렌드

금융사 IT자산 전수 식별, 대형사 모의해킹은 연 2회로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예고…전자금융기반시설에 닿은 모든 시스템이 점검 대상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AI를 활용한 해킹이 금융권 침해사고로 이어지면서 감독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분류하고,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평가를 연 2회로 늘리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이어지자 감독의 초점이 '사고 뒤 보고'에서 '자산 목록'으로 옮겨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30일까지 의견 수렴, 두 과제는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형 금융사 취약점 평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 연결 모든 시스템 점검 포함' 두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행정지도는 23일까지 의견 청취와 심의·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자산 목록이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기술(IT) 자산의 식별을 의무로 정했다. 중요도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이른바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발생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수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그 판단이 조항으로 이어졌다. 본체 서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작업은 세 가지다.

· 보유 IT자산 전수 식별
· 중요도에 따른 분류와 책임자 지정
· 자산 목록의 최신 상태 유지

대형사의 기준: 총자산 2조 원, 상시 300명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는 대상은 총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사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여력이 있는 대형사부터 연 2회 점검을 의무화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긴급한 취약점이 확인되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수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겼다. 정기 점검 주기와 별개로, 사고 징후가 잡히면 즉시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다.

점검 범위: 기반시설에 닿은 모든 시스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결제·송금을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뿐 아니라 그 시스템과 연결된 관리·통계·협력사 연동 시스템까지 범위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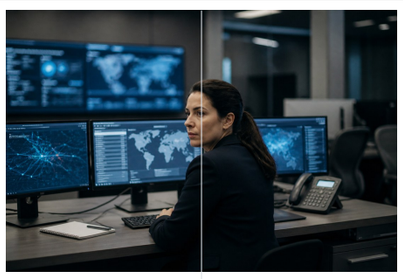
숫자로 본 최근 6주

금융당국 집계로 지난 5일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금융권 37개사에서 약 47만3천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자금 탈취 피해는 약 10억 원 수준이다. 9월 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뒤 11월 3일까지 접수된 침해신고는 40건이다.

사고 · 유출 규모 · 확인 시점
미래에셋생명 · 1만418명 · 11월 5일 기준
빗썸 · 7,159명 · 10월 12일 사고
스트리미(고팍스) · 2,009명 · 9월 사고

미래에셋생명은 당초 6천800명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현장 점검을 거치며 1만명을 넘었다.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계정보(CI)와 은행명·마스킹된 계좌번호 같은 거래 정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연금 현황까지 유출됐다. 신용정보법은 1만명 이상 유출 시 72시간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절차를 밟았다.

빗썸은 고객 6천444명 가운데 5천600명의 정보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유출됐다며 '외부 노출'과 구분했지만, 당국은 통틀어 정보 유출로 분류했다. 스트리미는 애초 9명으로 공지했으나 실제 규모가 2천9명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 관제실. 금융권에서는 한 달 새 37개사에서 47만3천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감독이 겨냥하는 것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자산 식별과 책임자 지정은 규제 문구로는 단순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전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외주 시스템까지 목록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작업이 앞선다.

적용 시점도 단계적이다. 대형사는 이달 30일부터 연 2회 평가를 받고, 중소 금융사는 기존 주기를 유지하다 준비 상황에 따라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정한 '총자산 2조 원·상시 300명'은 그 경계선이다. 보안 인력과 예산이 어디에 먼저 배분되는지를 이 기준이 가른다.

AI 해킹 도구가 취약점을 찾는 속도는 사람의 점검 주기보다 빠르다. 연 1회 정기 평가 사이에 열두 달의 공백이 생기는 구조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다.

테크·AI 트렌드

AI가 만든 패치가 리눅스 유지관리자를 검토자 자리에서 떠나게 했다

주 1회이던 커널 검토가 매일로…'Assisted-by' 태그는 1년 만에 폐기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AI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픈소스 유지관리자에게 검토 요청이 몰리고 있다. 리눅스 커널 유지관리자 한 명이 일반 검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고, 커널 커뮤니티는 AI 사용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가 되돌렸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수의 유지관리자가 다수의 코드를 검토하는 구조 위에 서 있다. AI가 그 검토 대기열을 빠르게 채우면서, 구조의 균열이 사람의 이름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검토를 제공하기 어렵다”

> “AI가 생성한 결과로 발생하는 커널의 현재 처리량을 고려할 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검토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내가 관리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검토자에서 나를 삭제한다”고 Arm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리눅스 커널 유지관리자인 로렌조 스토크스는 최근 커널 메일링 리스트에 밝혔다.”

그는 리눅스 커널의 메모리 관리와 관련한 네 가지 요소에 유지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일반 코드 검토 빈도는 주 1회에서 매일로 늘어날 정도였다.

그는 “이렇게 돼 미안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 메일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신호: LTS 릴리스 축소

리눅스 커널 펠로우인 그렉 크로아하트먼은 최근 오픈소스서밋에서 LLM이 생성한 패치를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지관리자들이 지쳐 장기지원(LTS) 릴리스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LTS는 기업이 오래 쓰는 커널 버전이다. LTS가 줄면 새 버전으로 옮기는 주기가 짧아지고,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유지보수 일정도 함께 당겨진다. 검토 인력의 한계가 배포 정책으로 번지는 경로다.

AI가 만든 보고서가 소수에게 모인다

LLM은 저숙련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버그를 찾고 패치를 만드는 능력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다수의 개발자가 결함을 찾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고, 검토 부담은 소수의 관리자에게 집중됐다.

문제는 양만이 아니다. AI가 만든 패치에는 맥락이 빠져 있거나, 실제로 재현되지 않는 결함을 근거로 삼은 경우가 섞인다. 검토자는 코드를 읽는 시간 외에 '이 보고가 실제 결함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따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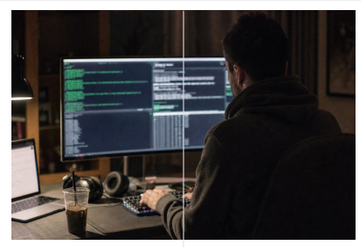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가리켜 'AI 슬롭(AI slop)'이라 부르는 이유다.

'Assisted-by' 태그의 1년

커널 커뮤니티는 1년 넘게 AI 사용을 어떻게 표시할지 논쟁했다. 2025년 7월 AI 사용 사실을 적는 'Assisted-by' 태그를 붙이자는 제안이 나왔고, 올해 1월 이 태그가 커널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4월에는 AI 도움을 받은 코드를 허용하되 AI 에이전트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Signed-off-by' 태그를 쓰지 못하게 하고, 투명성을 위해 'Assisted-by' 태그를 쓰며 책임은 인간 제출자가 지는 것으로 1차 정리됐다.

시점 · 커널 커뮤니티의 결정
2025년 7월 · 'Assisted-by' 태그 도입 제안
2026년 1월 · 태그를 커널 공식 문서에 포함
2026년 4월 · AI 도움 코드 허용, 책임은 인간 제출자
2026년 10월 · 프라하 유지관리자회의에서 태그 폐기 합의

지난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지관리자회의에서 태그 폐기가 합의되면서 제도는 도입 1년 만에 되돌아갔다. 가장 강하게 AI 사용 표시 의무를 밀어붙였던 쪽이 같은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개발자의 작업 화면. 리눅스 커널 유지관리자는 AI가 만든 패치 검토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검토 비용은 누가 내는가

리눅스 커널은 기업 서버와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들어가는 공용 기반이다. 이 코드를 쓰는 기업은 많지만 검토자를 고용하는 곳은 일부다.

리누스 토발즈는 논쟁 초기 AI 도구에 비판적이었다가 중립을 거쳐 옹호 쪽으로 조금 움직였다. “리눅스는 반 AI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면서 반대하는 쪽에는 포크하거나 커뮤니티를 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태그 논의가 정리되는 사이 LLM의 도움을 받은 첫 패치 시리즈를 공개했다.

AI가 패치 공급을 늘릴수록 병목인 검토의 희소성이 커지고, 그 비용은 유지관리자의 시간으로 먼저 청구된다. 이번 사례는 AI 도입의 효과와 비용이 같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패치를 만드는 쪽의 생산성은 올라갔고, 검토하는 쪽의 부담은 그보다 더 올랐다. 오픈소스 재단과 대형 기업이 유지관리자에게 자금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다음 분기의 커널 릴리스 일정에 반영될 변수다.

경제·금융 기초

연체 채권 4.7조 털어냈지만, 9월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뛰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연체율(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8월 말 대출 잔액)은 전월(0.12%)보다 0.03%포인트, 전년 동월(0.10%)보다 0.01%포인트 낮은 0.09%를 기록해 202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율은 0.59%로 집계됐다. 9월 중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전월(1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급증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2016년(0.8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2%로 전월 말(0.86%)보다 0.14%포인트 내렸으나 전년 동월 말(0.61%)보다는 0.11%포인트 올랐다.

국내 은행

올해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분기 말 연체 채권 정리 효과에 힘입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9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월(0.39%)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 전(0.12%)보다 0.21%포인트 급등하며 9월 기준 2019년(0.6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리고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 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월과 비교해 모든 부문의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일제히 상승했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셀렉트스타·신한은행, 금융 AI 평가 기준 만든다, 5000개 문항 ‘K-BankEval’ 국제학회 채택

K-BankEval은 금융지식과 검색증강생성, 금융추론, 답변 안전성, AI 에이전트 업무 계획 등 6개 영역의 500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테크·AI 트렌드

무안 농업 AX 시설 3곳, 데이터 연계 규격 설계, 9억8000만원 용역 발주

무안에 추진 중인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시설 3곳의 데이터 연계 방식과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용역이 발주됐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오피니언·사람

청소년 기자단의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

앞 면에서 계속 **연체 채권 4.7조 털어냈지만, 9월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전월 대비 연체율이 내린 것은 은행들이 분기 말에 연체 채권을 집중적으로 상·매각해 정리한 영향이다.

청소년 기업가

실패를 '자산'이라 부르는 여섯 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개막

17~22일 양재 aT센터…700여 명 참석, 청소년 특강은 27일까지 5개 권역에서

조경용 기자

청소년 기업가 · 2026.11.18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202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를 열었다. 올해 주제는 '실패 자산으로 AI 시대를 여는 힘'이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행사장 밖 전국 중·고등학교로 이어진다.

매년 11월 셋째 주, 200여 개국이 같은 이름의 행사를 연다. 한국에서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막이 올랐다. 행사는 22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진다.

700명과 51명

개막식에는 벤처기업인과 교육자, 학생, 일반인 등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가정신 챌린지 수상자 등 51명이 상을 받았다.

이어진 '기업가정신 다이얼로그 2026'에서는 이광형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실패 자산으로 AI 시대를 여는 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청년기업상 수상자 등 선배 창업가 3명이 토크콘서트에 나섰다.

투자와 연결되는 자리도 있다. 대학생과 초기창업기업 5개 팀이 투자유치(IR) 피칭을 했고, 창업팀과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만찬 '커넥트 나이트'가 열렸다.

청소년에게 닿는 경로

행사장 밖 프로그램이 이번 주 청소년에게 직접 닿는다. 18일에는 교사와 교육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실문제 해결'을 주제로 온라인 실습특강을 연다.

17일부터 27일까지는 창업가들이 전국 5개 권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실패와 도전 경험을 들려주는 특강이 이어진다. 행사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만나는 통로는 이 방문 특강이다. 22일에는 대전 롯데시네마에서 도전을 다룬 영화 '수능, 출제의 비밀'을 무료로 상영한다.

일정 · 내용

11월 17일 · 개막식, 기업가정신 다이얼로그, IR 피칭·커넥트 나이트

11월 18일 · 교사·교육자 100여 명 대상 우수사례 공유·AI 실습특강

11월 17~27일 · 전국 5개 권역 중·고등학교 창업가 방문 특강

11월 22일 · 대전 롯데시네마 영화 상영, 행사 폐막

'기업가정신 챌린지' 수상작은 행사 기간 aT센터 로비 체험존과 공식 홈페이지에 전시된다.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다.

'실패 자산'이라는 정책 언어

올해 주제인 '실패 자산'은 중기부가 재도전의 날과 연결해 내건 표현이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학습의 축적으로 규정하고, 재창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 "AI 대전환 시대에 실패의 경험이 또 다른 혁신과 성장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전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순배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말했다.

정책 언어가 바뀌면 지원의 모양도 바뀐다.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다음 창업의 심사와 투자에서 참고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의 IR 피칭과 투자자 교류는 그 기록이 자본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청소년 창업교육 24년의 층

행사장 밖에는 이미 쌓인 층이 있다. 중기부의 청소년 창업교육 사업인 비즈쿨은 2002년에 시작됐다. 사업(Business)과 학교(School)를 합친 이름으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우고 모의창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청주에서 열린 '2026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에는 88개 비즈쿨 운영학교가 전시관을 열고 청소년 100여 팀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주 행사의 중·고등학교 방문 특강은 그 위에 얹히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행사장에서 만난 학생들과 창업가.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일은 창업을 권하는 일과 다르다. 문제를 발견하고, 팀을 꾸리고, 자원을 모아 실행하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 한 번 겪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정책 행사가 내건 '실패 자산'이라는 말도 그 과정의 일부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라면, 성과는 행사장이 아니라 27일 이후 교실에서 드러난다.

테크·AI 트렌드

강남언니, 글로벌 이용자 1040만 명 돌파, 한국 미용의료 예약 1300만 건 기록

일본에서는 이용자 230만 명과 예약 200만 건을 확보했고, 태국과 중화권 예약은 1년 새 6배와 20배로 늘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가 1040만 명을 기록하고, 한국 병원의 누적 상담신청 및 예약 건수가 1300만 건을 넘어섰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대표 홍승일)는 국내외 누적 이용자가 1040만 명을 기록하고, 플랫폼을 통한 한국 미용의료 병원의 누적 상담신청 및 예약 건수가 13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글로벌 이용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용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10월 기준 태국 이용자의 한국 피부과·성형외과 상담신청 및 예약 규모는 전년 대비 6배, 중화권은 20배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개소한 '언니가이드(Unni Guide)' 센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용의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올해 강남언니는 글로벌 이용자의 미용의료 탐색부터 지속 관리까지 지원하는 '뷰티 내비게이터(Beauty Navigator)'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이용자와 병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미용의료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이용자 230만 명과 병원 예약 200만 건을 확보하며 현지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 병원 상담·예약을 이용한 태국 이용자는 전년 대비 6배, 중화권 이용자는 20배로 증가했다.

글로벌 브랜드 '언니(Unni)'를 통해 한국 미용의료 시술의 가격과 후기,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문장 번역뿐 아니라 미용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시술 관련 표현을 반영해 한국 병원 정보와 이용자 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지역별 상담·예약 이용자 증가 배율로, 전체 해외 이용자 증가율과는 구분된다.

경제·금융 기초

폐업도, 취업도 힘들다·소상공인, 폐업 결심부터 정리까지 1년5개월

폐업이 늦어진 318명은 인수자 탐색(34.9%)과 대출금 상환 부담(21.7%)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7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실제 사업을 정리하기까지는 평균 1년5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대출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계획보다 폐업이 늦어졌고, 그 사이 평균 15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과 손실을 떠안았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는 이런 소상공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일반 폐업자 1116명과 폐업 후 재창업해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한 633명 등 1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 지연을 겪은 318명이 꼽은 이유는 새로운 인수자 탐색(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 폐업 이후 대안 부재(20.8%) 등 순이었다.

음식점업 폐업자의 39.9%가 계획보다 폐업이 늦어졌다고 답해 음식점업에서 폐업 지연이 특히 심했다. 폐업 지연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평균 905만원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26.5%)을 꼽았다. 폐업 결심 당시 부채는 평균 8192만원이었다. 이런 부담에도 희망리턴패키지와 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폐업 지원 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4명 중 1명 수준(26.9%)에 그쳤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0.1%)을 꼽았다.

폐업까지 1년5개월, 결심 당시 평균 부채 8,192만원, 폐업 지원제도 이용률 26.9%가 이 조사의 핵심 숫자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출금 상환(26.5%), 가장 필요한 정책은 폐업 비용 지원(40.1%)으로 집계됐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대학 총학생회 "AI 부정행위 우려, 공정성 조치 즉각 필요"

포럼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테크·AI 트렌드

KIEP, 내년 세계 성장률 3.2%로 상향…AI 투자 둔화·미중 갈등이 변수

KIEP는 17일 '2027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청소년·교육

학교에서 시작한 일과 배움의 현장

5면

용어사전

VC,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

창업 기사에서 되풀이되는 말, 정의와 쓰임

조경용 기자

용어사전 · 2026.11.19

‘VC’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이다. 뜻은 공개 문서로, 쓰임은 사전 풀이로 확인했다.
VC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이다.
펀드를 만들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스타트업 지분을 산다.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해 큰 성공 한 건으로 전체 손익을 맞추는 구조다.

정의에서 한 걸음 더

한국어 위키백과의 ‘벤처 캐피털’ 문서는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VC)이란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말한다”라고 적는다.
문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주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이나 영업의 노하우 등이 없는 초창기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벤처 캐피털은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여 미국 GDP의 경우 2%를 차지할 정도이다.”

> “창업투자회사(창투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4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주식의 인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기업인수투자 등의 형태로 장기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 “또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자(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경영·기술 지도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의 기업화,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업무를 주로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같은 범주에서 자주 만나는 말

이 말과 함께 읽는 용어로 ‘스타트업’, ‘MVP’, ‘PMF’가 있다. 같은 자리에서 쓰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VC — ‘VC’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이다. 뜻은 공개 문서로, 쓰임은 사전 풀이로 확인했다.
그림=FIRSTPAGE

‘스타트업’은 작은 자원으로 빠르게 실험하며 성장을 노리는 회사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대신, 작게 만들고 손님 반응을 보고 고치는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는 것'이 미덕으로 불린다.
‘MVP’는 핵심 기능만 남긴 가장 작은 첫 제품이다. 팔릴지 확인하려고 만드는 시험용 제품이다. 기능을 다 넣기 전에 손님이 실제로 돈을 내는지 먼저 확인하면, 쓸모없는 기능을 만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PMF’는 제품이 시장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진 상태이다. 손님이 왜 이 제품을 쓰는지 설명할 수 있고, 추천으로 새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단계다. PMF 전에는 광고를 늘리기보다 제품을 고치는 데 돈과 시간을 쓴다.
이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벤처 캐피털’ 문서, 퍼스트페이지 자체 용어사전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경제·금융 기초

롯데百 매출 90% 따라잡은 신세계, 업계 1위 ‘맹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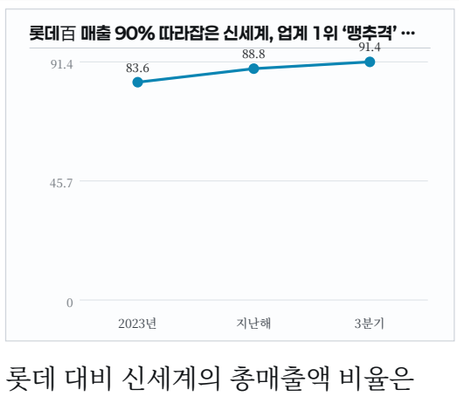
반대로 롯데가 확보하면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매출액 기준 국내 백화점업계 2위인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1위 롯데백화점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롯데의 84% 수준이었던 신세계의 총매출액은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90%를 넘어섰다. 롯데 잠실점(3조3010억원)과 신세계 센텀시티점(2조2642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간 거래액이 1조원을 넘는 점포는 신세계 5개, 롯데 3개로 집계됐다. 반대로 롯데가 확보하면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롯데 대비 신세계



롯데 대비 신세계의 총매출액 비율은 2023년 83.6%에서 지난해 88.8%, 올해 1~3분기 91.4%로 높아졌다.
지난해 신세계 강남점은 3조6717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국내 백화점 단일 점포 1위에 올랐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서울 소공동에 첫 점포를 개점한 이듬해 업계 1위에 오른 이후 40년 넘게 선두 자리를 지켜왔다. 점포당 평균 거래액은 신세계가 1조278억원으로 롯데(4598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의 국내 백화점 사업 총매출액은 6조4569억원으로 8.3% 늘었다. 양사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신세계의 성장률이 롯데를 웃돌면서 지난해 1~3분기 7140억원이었던 양사의 백화점 부문 총매출 격차는 올해 같은 기간 5577억원으로 줄었다 총매출액은 회계상 매출액(순매출액)에 특정매입원가 등을 더한 금액이다.



동전 몇 닢이 남은 유리병과 낡은 지갑. 현금이 마르는 날은 계산할 수 있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창업 스토리

바운스, 전국 28개 센터 관리자 안전교육, 응급처치부터 시설 운영까지 현장 대응 강화

기장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화재 대피 요령을 교육하고 모험시설 안전장비와 트램폴린 운영 수칙을 점검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바운스가 전국 28개 센터의 선임매니저와 본사 관계자 67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내 교육 플랫폼에서 2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연 4회 승급시험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평가한다. 바운스는 현장 운영 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입사자에게 50시간 이상의 공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바운스(대표 류호준)는 지난 17일 바운스 유니버스 부산에서 전국 28개 센터의 선임매니저와 본사 관계자 등 67명이 참여한 안전교육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국 센터 합동교육 역시 현장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각 센터에서 동일한 수준의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 활동의 하나다.

> “류호준 바운스 대표는 “시설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다르고, 비상상황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경험을 쌓은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경험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시설 관리와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구조다.
입사자는 50시간 이상의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고객 응대와 시설 운영,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을 익힌다. 실제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방법도 다뤘다. 바운스는 시설 운영 인력을 고객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전문가인 ‘히어로’로 육성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시설 운영 등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인한다.

단신

용어사전

GDP,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 만들어 낸 가치의 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 만들어 낸 가치의 합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8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경제·금융 기초

“반도체, 내년 더 좋아”, 경제성장률 대폭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202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높였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테크·AI

도구가 바꾸는 일의 방식

테크·AI 트렌드

반도체 '나홀로 호황', 내수·중기 "수출 1兆달러 체감 못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이렇게 반도체가 '나 홀로 호황' 을 보이면서 내수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수출 1조달러를 체감하기 어렵다" 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수출 1조달러 돌파는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배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2%를 넘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가 실리는 미주 노선은 부산신항에 많다"면서 "인천신항에서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

김정관 장관도 지난 17일 인 들과 만나 "AI 투자가 조정되면 반도체 수출 수요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반도체 이외 다른 품목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산업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사상 연간 수출 달성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이 '우리 수출의 최전선'을 찾았다"고 산업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높은 자본 집약도로 취업 유발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면서 "반도체 호황이 고용과 소득으로 환류되는 경로가 약하다"고 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 급증이 중소·중견 협력사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도 크지 않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앞둔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항만·물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제 교과서와 안경. 어려운 기사는 대개 용어에서 막힌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용어사전

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정의에서 기사 속 문장까지 따라간다

조경용 기자

용어사전 · 2026.11.18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2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 보여 준다.

퍼스트페이지 기사에서 이 말은 '테크·AI 트렌드' 면에 나온다. 자체 용어사전은 이 말을 '경제' 분야로 묶는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

한국어 위키백과의 '주가순자산비율' 문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to-book ratio, P/B ratio)는 주가를 BPS(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이다"라고 적는다.

문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PER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주가순자산배율이 그 회사를 정적인 상태 즉 스토크(stock)면에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주가수익률은 동적인 상태 즉 플로(flow)면에서 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 "다만 이 주가 순자산배율에도 주주소유분이 장부가격에 의해 계산되고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계산기준이 전기의 결산기가 된다는 등의 난점이 있다."

지면에서 만난 PBR

퍼스트페이지가 11월 17일 보도한 「매경이 전한 오늘의 지식: 저PBR 10곳 중 9곳,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 기사는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으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저PBR 기업 대주주에 대해 상속·증여 때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읽을 말

이 말과 함께 읽는 용어로 '시가총액', '배당', '채권'이 있다. 같은 자리에서 쓰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회사의 시장 가치이다. 주가 1만 원인 회사가 100만 주를 발행했다면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다. 회사 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쓰인다.



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그림=FIRSTPAGE

'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는 현금을 받지만, 회사에 남는 돈은 줄어든다. 성장 단계의 회사는 배당보다 재투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은 돈을 빌리며 언제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적은 증서이다. 발행한 곳이 약속을 지키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주가순자산비율' 문서, 퍼스트페이지 자체 용어사전, 퍼스트페이지 보도 기사 「매경이 전한 오늘의 지식: 저PBR 10곳 중 9곳,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테크·AI 트렌드

AMD, 월드랩스 이어 추론 반도체 기업 탈라스 인수, AI 모델·칩 개발 역량 확대

AMD가 인공지능(AI) 추론용 특화 반도체 기업 탈라스와 3차원 AI 모델 개발사 월드랩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AMD는 AI 추론 특화 반도체 기업 탈라스(Taalas)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AMD는 AI 모델 개발 기업 월드랩스(World Labs) 인수도 완료했다. 16일(현지시각) 발표된 이번 인수로 AI 모델 연구진이 AMD에 합류했다.

AMD가 앞서 발표한 월드랩스 인수 계약 규모는 약 82억달러로, 전액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드랩스 인수는 AI 모델의 작동 방식과 연산 요구사항을 반도체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리사 수 AMD CEO는 "차세대 초지능을 구동할 인프라를 제공하려면 컴퓨팅 플랫폼과 모델을 함께 최적화해야 한다"며 "월드랩스의 선도적인 모델 연구는 미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MD가 인공지능(AI) 추론용 특화 반도체 기업 탈라스와 3차원 AI 모델 개발사 월드랩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밤시 보파나 AMD AI그룹 수석부사장은 "AI 추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각자의 작업에 최적화된 다양한 컴퓨팅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며 "탈라스가 AMD에 합류하면서 차별화된 추론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할 역량을 확대하고, 통합 AI 플랫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MD는 월드랩스 연구진이 AI 모델 개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자사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차세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방향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AMD는 탈라스의 기술을 AI 가속기 개발 로드맵에 반영하고, 기존 '인스팅트(Instinct)' GPU와 결합한 시스템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AMD는 지난 8월 탈라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딥엑스 AI 반도체 탑재한 대만 에이페이서 '바이클로', 2027 대만 우수제품상 수상

딥엑스의 AI 반도체를 탑재한 대만 에이페이서의 엣지 AI 제품 ' 바이클로' 가 2027 대만 우수제품상을 수상했다.

테크·AI 트렌드

코딧, 신보 '퍼스트펭귄' 선정, 10억 건 정책 데이터 기반 규제 AI 고도화한다

10억 건 이상의 법·규제·정책 관련 데이터를 자체 AI 기술과 결합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금융 기초

스마트폰 D램까지 AI 서버로, “내년 HBM 평균가·첨단 패키징 매출 2배 이상 뛴다”

트렌드포스는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 사용을 확대하는 구글의 HBM 수요 비중이 올해 22%에서 내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이 AI 연산 칩과 HBM 등을 한데 묶는 첨단 패키징 사업에서 올리는 매출도 1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트렌드포스는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6세대 제품인 HBM4의 가격과 출하 비중이 함께 높아져 HBM 전체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 기가비트(Gb)당 1.67달러(약 2235원)에서 내년 3.70달러(약 4951원)로 122% 상승할 것으로 봤다.

HBM 전체 출하량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내년 5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 AI 서버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수요가 2025~2030년 연평균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세계 서버 출하량이 올해보다 21% 증가하는 반면 스마트폰 생산량은 7.8%, 노트북 출하량은 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왕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새로운 HBM 세대가 나오면 기존 제품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며 “내년에는 HBM4가 주력이 되지만 HBM3E도 상당한 물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렌드포스

구분 · %

올해 · 22.0

내년 · 31.0

트렌드포스는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 사용을 확대하는 구글의 HBM 수요 비중이 올해 22%에서 내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30.8% 증가한 2943억9400만달러(약 393조96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첨단 패키징 매출은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1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로드쇼 코리아 2026’을 열고 내년 AI 수요가 반도체 생산과 메모리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애널리스트

왕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공급사들과 논의해 봐도 2027년에는 수요가 강하고



계산기와 동전을 놓고 본전을 짚어 보는 상인. 고정비를 개당 남는 돈으로 나누면 된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내년 메모리 가격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기초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실질 타결, 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교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양자회담이 친근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약 34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이 대통령의 요청에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8년 8개월간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콘텐츠·관광 등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견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선전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대통령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한중 간 인적교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기록됐던 1300만명이 복원되도록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한중 상품 교역액은 2729억달러(약 364조원)였으나 서비스교역액은 388억달러(약 52조원)에 그쳤다. 양국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값을 적을 카드와 동전을 놓고 가격을 정하는 상점 주인. 가격은 회사가 버는 돈을 정하는 숫자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경제·금융 기초

200억 벌고 회사는 4억?, 이정재 측 “최대주주 특혜 아냐, 사실관계 왜곡 법적대응” [공식입장]

당초 이정재 배우 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MG를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무상으로 권리를 제공하는 데 따른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정산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이정재 배우와 함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동료 배우 역시 별도의 임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두 배우에게는 동일한 조건의 정산계약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 사무실 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이정재 배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상 사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이러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면서 ”수익배분 상한은 이정재 배우만의 특혜가 아니다. 수익배분 상한은 이정재 배우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기사는 이정재 배우의 정산계약에 수익배분 상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마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 “특히 아티스트컴퍼니는 수익 배분 상한선이 없었다면 소속사가 16억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에 대해서도 “이는 정산계약에서 상한 조항만 제거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계산”이라며 “이정재 배우가 소속 배우 중 회사의 매출과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 조항만으로 이를 특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컴퍼니 측

18일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디스패치의 취재 요청에 대해 배우 정산계약의 구조, 본점 이전 경위, 임대료 산정 근거, 베나뷰티 계약의 경제적 실질, 기타 투자 및 사업 재편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해당 기사는 일부 해명을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을 뿐, 해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비교사실과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이정재 배우 개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집중되도록 작성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베나뷰티 계약은 회사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사는 베나뷰티와의 계약을 회사의 이익을 이정재 배우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거래처럼 묘사하였다.



동전 몇 닢이 남은 유리병과 낡은 지갑. 현금이 마르는 날은 계산할 수 있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정재 배우는 오랜 기간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개발을 준비하며 베나뷰티를 설립하고 관련 개발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당초 이정재 배우 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MG를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무상으로 권리를 제공하는 데 따른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단신

경제·금융 기초

중국 '한한령' 해제, "K기업, 중국 내 매장 운영하고 여행객 모집 가능"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했다.

경제·금융 기초

"금붕어냐" 면박, 아빠같은 성격, 엔비디아 실세 매디슨 누구

엔비디아에서 수십년을 근무한 임원들을 상대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매디슨 황의 엔비디아 재직 기간은 6년이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기자단·칼럼

청소년 기자단이 쓴 관점과 제안

창업 스토리

'석자 얼음' 녹는다, 시진핑 만난 李, 한반도 평화·中시장 동시 공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한반도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과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앞서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 당시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 정상의 한반도 관련 논의는 지난 1월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양 정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위 실장은 "시 주석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며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두발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양국은 식품안전 협력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최근 우리 단감의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도 나왔다. 2015년 12월 발효된 기존 FTA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맞는 동네 카페 사장. 다시 오게 하는 비용이 새 손님을 부르는 비용보다 싸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창업 스토리

중기부, 민간기업과 5년간 2조원 조성,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대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AI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우선 중기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기업과 함께 총 2조원을 조성해 2천개 이상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AI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개방형 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제조 AI 관련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업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031년까지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참여 규모를 1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제조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AI 활용 역량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 현장에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중기부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11곳,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5곳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이 보유한 AI 기술과 제조혁신 역량을 중소 제조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기관들은 개방형 혁신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동반사업전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동반사업전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AI 관련 신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과 인프라 등을 제공해 함께 사업을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업전환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약식 외에도 19일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 혁신주간과 연계해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6개 행사를 개최, 제조 AI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연합뉴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창업 스토리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9개 팀에 총상금 1억 원, 모스픽·사이트스페이스 대상 수상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약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9개 팀이 성과를 발표하고 총상금 1억 원을 놓고 경쟁했다.

아산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비영리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총 62개 기관의 80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올해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9개 팀이 성과를 공유하고 총상금 1억 원을 놓고 발표에 나섰다.

한가온 모스픽 대표는 “지난해 도전트랙에서 올해 성장트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알럼나이 팀들과 나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며 “모스픽 역시 다음 팀들에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임팩트 피칭에는 성장트랙 6개 팀과 도전트랙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참여했다.

> “엄윤미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영리의 한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어떤 상상력을 만나 어떤 사람과 문제에 연결되는 것”이라며 “6개월간 달려온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팀들의 실험이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6(비스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스콘은 아산나눔재단의 초기 비영리 조직 육성 프로그램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혁신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다.

단신

창업 스토리

마크비전, 월 13만 원부터 위조상품 대응, 중소 브랜드용 AI 보호 서비스 출시

요금제는 연간 결제 기준 월 13만 원부터 270만 원까지 4개로 구성된다.

테크·AI 트렌드

미국 30여개 주, '캐릭터닷AI' 매각 심사 강화 요구, 아동 대화 기록 쟁점

미국 30여개 주 정부가 아동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AI 챗봇 서비스 ' 캐릭터닷AI(Character.AI)' 의 매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